

제 190 호

연중 제 15 주일

1976. 7. 11.

#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감론 ●



##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김 동 준 신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인간적이라든가 인간조건이라 말할 때는 우리의 윤리적인 잘못(죄)과 근본적인 약점(악)을 자인하는 것이며 나가서 스스로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스도께서도 이등에서 "죄악의 실제"를 인정하셨고 (마테오 17장 7절) 주의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로마 8장 22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조건을 스스로 취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보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섬기고 인간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생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희망으로 우리의 구원도 시작되었다"(8장 24절)고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사랑의 주님이 계시고 내가 지금 제단 앞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써 불쌍히 여기심을 기도할 수 있음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 기도를 성심으로 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인간임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오늘 12사도를 파견하시는 복음 말씀 안에서 몇가지 점을 묵상하고 사제와 신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제는 누구며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왜 그들은 자신의 계획과 긍지를 포기했습니까? 신자들이 흩어지고 외면할때 사제들은 가정 섭섭한 삶의 주인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치방이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치방이는 바로 주님의 기쁜 말씀입니다. "멀고 험한 여행길엔 가벼운 차림일수록 좋다"는 주님의 어진 분부입니다. 사제들이 이 복음의 단순성 안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며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한 일을 저울질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제가 일차적으로 이 치방이로 생활의 중심을 잡고 신자들도 주님의 기쁜 소식에 매달린다면 부정과 미움, 불안과 회한(悔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현상을 쉽게 인간 조건으로만 돌리고 적당히 삶을 낭비한다면 빛과 생명과 말씀을 주시고 더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느님께 얼마나 큰 실례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무주 천주교회 주임신부>

❖ 시대의 징표 ❖



## 조상의 빛난 얼과 『점은주먹』 선풍

「점은주먹」알리가 다녀간지 2주, 이제 당시의 추태를 거울삼아 반성해보자. 내일을 위해서.

어떤 신문은 이렇게 썼다. — "아무리 歐美化의 소용돌이에 말려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포옹하고 키스한다는 법은 없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형제 간일지라도 예의일 수는 없다. (중략)"

TV화면을 통해 한국의 인기 연예인들이 앳다투어 그에게 키스를 하고 그에게 안기고자 그의 팔을 끌어다 허리에 감곤 하는 작태가 반드시 후한 대접이나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법은 없을 것이다.

적지않은 시청자들이 TV 스위치를 껐다. 그런 행동이 전통적 무의식을 자극,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환멸을 주었기 때문이다.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알리가 명동을 산책하고 소풍할때 맹렬하게 휘어든 젊은 여인들이며, 여결원들이 그 「점은입김」을 선망하고 앳다투어 불을 내밀었다. 알리도 키스 天國으로 가고 이젠 지나가는 행인을 뒤쫓아가 키스하려 들었다니 入道古今에 이런 망신이..... "(7월 1일자 조선일보 만물상)"

— "〈알리와 함께〉는 일대 賣春쇼, 亡國쇼, 秘密 기생 파티. 고질적으로 병들어 있는 MBC-TV의 精神千조" (7월 6일자 한국일보 5면)

한 나라의 장관이 그렇게도 시간이 남아돌아가서 「점은주먹」이 20분이나 늦게 샵쓰바람으로 나타난 만찬회에 꼭 나가야 했던가? 무엇이 事대인가?

국민들을 올바르게 제도해야 할 한 나라의 유수한 매스컴이 그 추태를 긴시간을 할애해서 비싼 전파로 방영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머리밖에 없던가? 이것이 소위 물자절약인가? (7월 1일 한국 방송 윤리위원회 MBC-TV에 경고처분, 2일 MBC-TV 사과방송)

「점은주먹」은 진정한 시대의 王인가? 「조상의 빛난 얼」과 「점은주먹」의 선풍을 일으키게 한 그것과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름다운 한국을 보여 민족 주체성을 드높이고, 국적 있는 환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 전주교구 매스컴 위원회

## 숲 정 이 산책



기대가 큼니다



# 3.1 사건 공판 방청기 (7)

김 영 신 신부

버림받은 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입을 열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며 불행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옹호해 주려(잠언 31장 8-9절)했던 신부들이 구속 되었기 때문에 한국 주교단은 7명의 변호인을 선정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기소된 분들을 위한 변론을 하도록 자유스럽게 만나 충분한 대화를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기소된 분들은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신문에서 자자 자기 전공분야 별로 본 현실을 충분히 말해야 하고, 방청인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연수를 해야 한다. 또한 때때로 변호인은 검사의 제지 발언이 있으면 반대 신문 할 때로 미웠으니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구차한 말들이 재판정에서까지 오가야 한다. 재판장은 법정모독을 한다고 경고해야 한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재판, 명예, 권위의식도 아닌 모종의 압력 때문일까? 압력을 '받는다'는 변호인들 때문일까? 변호사가 국회의원이어서 일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변호인을 접촉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못하게 해서 과연 재판이 공정하게 될까? 누구의 탓으로 돌릴수 없는 기막힌 현실이다. \*아름든지 변호인 반대신문에 귀를 기울여 보자.

1. 문동환 목사-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목사배양에 봉직 한 교수로 현실을 보고 예언자적 신념을 피력한다. 특히 그리스도 가르침을 따르고 생활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과 절대로 비슷한 것 같아, 훌륭한 종교인을 용공분자로 일부 종교인들까지도 왜곡하여 말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맑시즘과 그리스도 사상을 비교 설명한다. 「설명이유는 구속 기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앙인은 하느님과 대화하므로 인간답게 된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부자도 이웃도 구원하는 하느님 나라가 이땅에 이뤄지도록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악만 가지고 부쟁한다. 하느님과 인간 차원을 알아듣지 못하고 반 진리를 가진 자들로 진리를 가장무서워 한다. 그러므로 종교인들과는 가장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하느님 아들(인권)은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누구도 침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느님도 인간이 타락하면 막지 않는다. 땅아와 같이 회개하고, 잃은 양을 찾는 것 처럼 인간이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개별적 인간이 존중되는 인정속에 살라고 아름다운 산천을 주셨기에 신·구교 연합기도회를 가졌던 것이 문제가 되었으니 유신헌법으로 정부가 진짜기도, 진짜 교회를 가져줄 모양이다. 이렇게 한정 한다면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겠는가? 자유가 아니다.

2. 이우정 교수-기독교 여성 연합회장으로 있을 당시 사임 중용을 받았는데 이유는, 판방 외국인들과 매춘 행위 반대와 일본 교포들의 해직 인권유린을 구해 주기 위한 태타치상품 불매 운동과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운동을 했던 것이란다.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당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가 반정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20년 동안 학원에 몸바쳐 온 본인이 정확한 사유도 모르고 해직당했다. 또한 지금과 같

은 때는 없었다면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간, 교수와 교수끼리 서로 의심하고 명령, 간섭, 규제로 학원자유는 없다며 진실한 총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이전 비판의식까지 없어 장래가 우려된단다. 그러므로 학생이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도록, 전인적 교육을 하도록 학원은 교수들에게 맡겨야 한단다. 또한 불균형한 사회를 사랑으로 이끌지 않으면 정치, 경제, 외교는 모두 "짱패"란다. 어린아이가 독약을 마실때 못마시게 하면 적극적인 협력이라면서, 비판을 싫어하면 썩어가고 퇴보한단다.

3. 이문열 교수-기독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행정학을 전공한 고대 박사교수다. 자기는 요한복음 7장7절 말씀과 같이 권력자를 싫어한단다. 이번도 그 말씀을 실천했을 뿐이란다. 왜냐하면 5.16혁명은 3.1운동, 4.19의거와는 전혀 체제와 의도가 다른 것으로 현재제는 행정학적으로 볼때 "치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은 자기 신념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안식일을 택해서 항상 말한것처럼 자기도 기도회를 통해서 말했을 뿐이란다. 또한 사실 왜곡, 비방, 선동했다는 데 "민주구국 선언"문에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공소장을 받고 놀랐으며, 그 공소장을 비방했고 선동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인도지나 사태와 똑같이 보면 안된단다. 월남문제를 잘못 말하면 오히려 공산당이란다. 간단히 말해서 행정학적으로 현재 국제 사회에 최소한 도도남독할만한 기준이 ○○보다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기도내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의사 표시지 정부에서 말하듯 폭력적인 대처는 아니다. 자기는 "사격술을 배운 적이 없다".

4. 안병무 목사-신학교 학장과 교수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장시간 정교분리를 설명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인들의 권모술수와는 달리 비판하고 종합된 현실에 참여하여 새나라 새 희망을 갖고 불쌍한 편에서 서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권력자가 무서워서 재판을 했고 그를 죽였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조시대 "천주교 박해"(유교때문이다)가 있었다. 이같이 오늘날도 불소악이 타파되어 새희망을 찾는 것이므로 무서워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모든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여기에 끌려올 필요가 없었다.

5. 이해동 목사는 단순히 "민주구국선언"문을 프린트하는데 협조한 증인이라한다. 자유 부제의 인간은 "감방" 신세와 같으며, 이 공소 사실과 같이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증언하며, 자기가 행동자로 "민중봉기"를 할려면 자기에 말했을 것인데 3.1절에 자기는 무관심하게 지냈다고 증언한다.

공판을 방청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구청에 문의하여 방청권을 갖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대법정에 가면 됩니다.

(교구 관리국장 신부)

대학의 광장

옥중 영세, 전진 소감

김 인 호 <발라바>

□ 이 글은 지난 6월 18일 전주교도소에서 영세(19명) 받고, 전진(51명)한 옥중 입교 소감이다. 이날 많은 교우들과 성가대가 참석하여 이들을 기쁘게 했다. 특히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이 준비한 편은 이 잔치를 더욱 푸짐하게 했다. <편집자주>

멀고도 가까운 의부세계와 높은 담장으로 차단된채 세월만 먹고사는 이곳 수감원들 가슴속에 새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던 영광스럽고 복된날, 6월 18일-월요일같이 어두운 곳에도 생명의 빛은 찾아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죄악과 방탕과 절망속에서 살아왔던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지며 살아온 반생(半生)이 아무런 목적도 보람도 없었기에 후회와 참회의 눈물만 남아있을뿐. 이런 죄인들에게도, 주여——!

당신의 자식으로 택하시어 주의 등불을 높이 밝힐수 있도록 주신 은총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일찌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이곳-절망과 실의속에 여생의 방향마저 망각해버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스며든지도 어언 2년여——

이곳 불모의 땅은 기름진 옥토로 변하여. 벌써 세번에 걸친 영세로 70여명의 새 영혼이 탄생하였으며 이번 전진성사로 하느님의 충실한 군사 51명이 태어났습니다. 미사중 “우리는 성세성사로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성체성사로 예수님과 일치되었으며, 전진성사로 주님의 굳센 군사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자”는 주교님의 감명스런 강론 말씀에 우리는 모두 새 마음으로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완악한 인간으로 빠뜨렸는지……? 이젠 정녕코 성신의 쉼을 받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안에 고이 잠들때까지 착하고 바르게만 살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받도록 베풀어 주신 주교님과 지도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교우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저희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형제애로써 돌봐주신 차 동주(라우렌시오) 형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대부분들께 감사와 부탁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구중에 잊지 말아 주시옵고 저희들도 이렇게 두손모아 열심히 기도 바치기로 굳게 약속드립니다.

(전주교도소 교우 대표)

요심이 (154) 리병오



\*언제나 매용해 주십시오\*

입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원준(야코버)

여자보세공 모집

1. 자격 : 17세 이상
2. 모집인원 : ○ ○명  
※수시 모집함
3. 연락처 : 전화 ②8466  
전주시 전동성당 골목  
김영환 (아오스님)

김용길 양복점

교우 여러분과 결혼 예물은  
특별 염가 제공  
정병준(정아우구스티노)  
전주 중앙동 조흥 은행 앞  
전화 ④ 3 5 1 9

천사의 모후 P.700 차(15년) 주회기념

축하미사-7월11일(일)10시미사  
자축파티-7월12일(월)오후 8시  
레지오 마리에 회의실  
에달에 함께 활동했던 단원들  
협조단원들, 바쁘시더라도 꼭 오  
셔서 즐거움을 함께 해주시기 바  
랍니다. (개별통지생략)  
전주교 전동교회  
천사의 모후 P 아람

◎교우 여러분께 특별 봉사함  
새롭고 저렴한 연탄보일러 온돌 안내

한국온수산업사

전남북 총판, 기술보급소  
군산지점 7211  
정읍지점 2157  
부안지점 736

이리시 인화동2가65-16 (전화 4940)  
한동암 (모이세)  
※각 지방 대리점 구함

□개원안내□

★언제나 찾아주세요★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현(아오스님)  
전화 ② 1665

\*교우 여러분들을 특별 우대함\*

농약, 씨앗, 농기구  
고농농약사

전주시 전동 1가 303의 7  
검포전화 ②4740번  
박태수 (벨라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공지사항 \*

1. 전주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조직 (7월 7일)

- 총재 김 재덕 주교, 위원장 이 대권 신부, 간사 유장훈 신부
- 교육분과위원회 - 유 장훈 신부, 정 순일 수녀, 조 해형, 천 건보
- 인문분과위원회 - 정 증현 신부, 김 영희 수녀, 김 남규, 박 희보
- 사회경제분과위원회 - 김 용태 신부, 송 윤희 수녀, 김 순성, 김 정생
- 홍보분과위원회 - 한 봉섭 신부, 김 영자 수녀, 조 성호, 한 상갑

2. 제4지구 중·고등 연합회 회장단 회의 - 18일(일) 오후 2시 (중앙성당 사제관)

3. 대학생 지역 대회 8월 11일(수)~14일(토)까지 장소: 변산만 위도 참가비: 2,500원

4. 무주 내도리 도선 전복 사고 조위금 41,400원 감사합니다.

김 재덕 주교님 (30,000원), 이리 창인동 천주교회 (11,400원).

(중양)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임한길  
 ③3874 수석보좌 신부 이대룡  
 제2보좌 신부 김병상  
 사도 회장 이대룡

1.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불사 분과 위원회: 17일(토) 저녁 8시반 사제관 3층
3. 75. 76년도 영세자 특별모임: 17일(토) 저녁 8시
4. 미사시간 변경(평일): 저녁 8시→8시반으로
5. ★축★중양 가톨릭 청년 합창단 발족 회향-이진외(베드로), 부회장-김욱기(요한 비안네), 지휘-김태우(알폰소),
6. 성모 유치원 방학: 15일(목) ※ 방학을 즐겁게!
7. 첫 영성체(고백성사) 준비교리..내일(12일) 오후5시부터
8. 중양 신용 협동조합 직원모집(남자): 문의 바랍니다 전화 ⑤5195

(복자)

전화 ⑤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반 회합: 13일(화) 14반 김마리아씨때 김행자 반장 <진북동>, 14일(수) 15반 임미카엘씨때 서요안 반장 <진북동>, 15일(목) 16반 이마리아(명옥)씨때 진제, 피아 반장(진북동).
2. 복자 성우회 응진에서 야외행사 갖기로... 7월 17일(토) 오전 9시에 출발하오니 빠짐없는 참석바랍니다.
3. ★신용 협동조합 소식: ① 신용협동조합에 새 주민 등록증 지참 정리바랍니다. ② 이사회-16일(금) 오후 8시 ③ 이사님께서는 빠짐없는 참여 바랍니다. ④ 정기 총회-30일(금) 오후 8시 ⑤ 조합원께서는 전원 참석바랍니다.
4. 복자 부녀회 임시총회: 12일(월) 오후 2시 ※회원들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사도 회장 조해형

1. 신용 협동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애령회 간부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모든 미사 예물은 반드시 본당 신부님께 직접 내주시기 바랍니다.
4. 성미를 거두는데 협조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5. 재속 형제회 전국 총회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참가하실 분은 본당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 1,00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훈

1. 7월 21일(수) 오후 3시까지 유아세례식-7월 19일까지 접수 바랍니다.
2. 성당 개수 회차금 7월 11일(일) 공식미사 저녁 미사 전 후에 다음과같이 접수받음-빠짐없는 참여바랍니다  
 1조(박장훈, 박기흠, 각 반장)→1반~5반까지  
 2조(강남준, 김재열 각 반장)→6반~10반까지  
 3조(오상관, 박종갑 각 반장)→11반~18반 및 지도자
3. 신용 협동 조합원께서는 18일 다음주까지 통장, 인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조합에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매월 첫주는 본당 결산보고 및 공지사항(강론시간 직후)-7월에는 들켜 주
2. 공소 특별 미사 안내: 7월 11일(일) <전당리-오후 3시, 미산리- 오후 5시>
3. 신용 협동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 후
4. 교무금을 빠른 시일내에 완납하도록 협조해 주세요. <각 구역회장, 반장, 공소회장님께서는 남부현황을 참조하시어 미납인 가정을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문규현  
 사도 회장 양윤모

1. 자모회: 10시 미사 후
2. 장우회: 저녁 미사 후
3. 등·반장회의: 월요일 저녁 8시 30분
4. 성 가정회: 월요일 오후 2시
5. 성화회 주관 야외행사: 17일(토), 숙리산
6. ★축★ 전사의 모후 P. 700자 주회 기념행사 <3면 광고 참조 바람>
7.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14일 오후 8시40분 정각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진수 신배인음	성모회 월례회	5,860원	제 3 지구	주현동 동우회	부인회	55,725원
		본당 사무 회의	23,630원			★후 본당신부님 영명 축일★	56,410원
		불우이웃돕기 협조에 감사합니다. 신우회 월례회	18,557원			청년회 간부 모임	7,745원
제 2 지구	대문울동동합	임피 공소미사	5,840원	제 4 지구	중노송동 진자서학동	중양 가톨릭 청년 합창단 발족	86,849원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53,260원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30,690원
		바다의별 꾸리아	32,971원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16,290원
		꾸리아 회	17,385원			17일 성우회 야외행사	26,030원
		15일 성모회 월례회	14,000원			유아세례식, 희망자 접수 사도회, 장우회	24,647원
제 3 지구	고금여삼	교리 교사 하기 연수회	4,725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임	꾸리아 월례회	9,465원
		신우회 월례회	18,350원			반상회에 협조해 주세요	9,165원
		★축★본당신부님 영명 축일★	5,475원			11일 인월공소 미사	16,980원
		신용 협동조합 월례회	12,395원			신진 공소 임원 선출	4,005원